

12월의 입을 만찬 책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추천자
문학 예술	사람 보는 눈	손철주	현암사	2013.10.30	이현우
	또또	조은	로도스출판사	2013.10.31	정이현
인문학	사라진 용유도원도를 찾아서	김경임	산처럼	2013.10.20	김문식
	근대의 역습	오창섭	홍시커뮤니케이션 (홍시)	2013.11.01	이진남
사회 과학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프란시스코 페레, 박홍규/이훈도	써네스트 (우물이 있는 집)	2013.10.21	왕상한
	와튼스쿨 인생 특강	스튜어트 프리드먼/ 홍대운	비즈니스북스	2013.10.25	전형구
자연 과학	과잉 진단	길버트 웰치/ 홍영준	진성북스	2013.09.25	이한음
실용 일반	어이없이 틀리는 우리말 500	여문주	인이레	2013.10.01	이하경
유아 아동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글, 김수자 그림	서해문집 (파란자전거)	2013.10.20	김대경
	바들땀 세계여행	레지나 글, 김두현 사진	한겨레출판 (한겨레아이들)	2013.10.28	이상희

문학예술 분야



사람 보는 눈
손철주/현암사
2013.10.30 발행/284쪽/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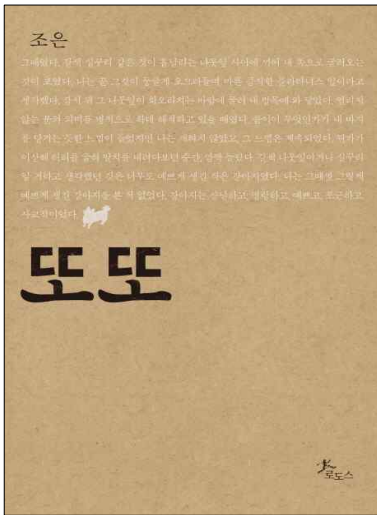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수를 점치는 걸 관상이라 한다. 비단 좋은 운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 ‘사람 그림’ 보는 눈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질 수 있다면 손철주의 『사람 보는 눈』은 제대로 고른 책이다.

이미 우리 옛 그림을 어떻게 보고 읽을 수 있는지 안내해 온 저자가 이번 책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우리 그림’만을 골라서 설명과 논평을 붙였다. 짧지만 군더더기가 없어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족하고 논평은 간명하지만 핵심을 전달한다. 가령, 작자 미상의 ‘황희 초상’에서 유난히 귀가 크고 코밑수염이 윗입술을 넘지시 가리게 그려진 걸 통해 많이 듣고 입은 무거웠던 것이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비결이었을 것이라고 읽는다. 하지만 황희의 청빈에 대해서는 실록에서도 엇갈리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초상화 한 점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품평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조선의 대표화가 세 사람, 곧 삼재(三齋) 중의 한명으로 꼽히는 윤두서의 ‘자화상’에서는 보는 사람을 보는 강렬한 눈빛과 콧속의 잔털까지 잡아내는 이 국보 그림의 묘사력을 지적하고 자화상에 그려진 실존이 본질 자체라고 평한다. 완당 김정희의 유배시절을 그린 제자의 그림에 대해선 ‘제자 잘 길러 복 받은 스승’이라고 일컫는다. 저자의 눈길을 따라 그림들을 읽다보면 사람 보는 눈이 저절로 깊어지는 듯해 스스로 대견하다.

- 추천자 : 이현우(인터넷 서평꾼)

문학예술 분야



또또
정이현/로도스출판사
2013.10.31 발행/180쪽/11,000원

어떤 책은 한 줄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한 시인이 17년의 시간을 같이 한 반려견을 추억하며 쓴 책이다. 또한 각각 다른 두 생명이 함께 보낸 17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의 첫 만남을 작가는 이렇게 회상한다. '갈색 실꾸리 같은 것이 훑날리는 나뭇잎 사이에 끼어 내 쪽으로 굴러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곧 그것이 둥글게 오므라들며 마른 큼직한 플라타너스 잎이라고 생각했다. (...) 깜짝 놀랐다. (...) 너무도 예쁘게 생긴 작은 강아지였다. 나는 그때껏 그렇게 예쁘게 생긴 강아지를 본 적 없었다. 강아지는 상냥하고, 명랑하고,

예쁘고, 포근하고, 사교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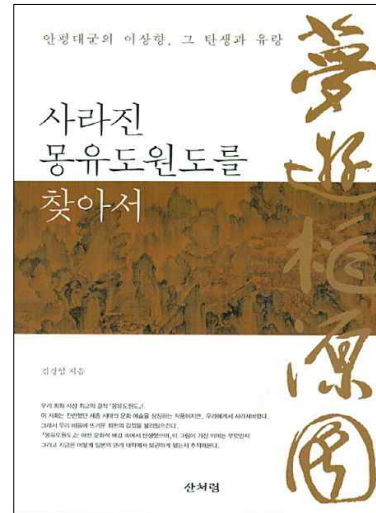
그러나 시인은 외면하려고 애쓴다. 그 외면은 덤덤해 보이지만 실은 필사적이다. 시인에게는 열 살 무렵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아버지에 의해 식용이 되어버린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약한 존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랑하는 대상을 불시에 잃어버린 고통은 그가 어른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고 내면을 짓누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또또는 차츰차츰 시인의 방으로 스며들고, 둘은 천천히 친구가 되어간다.

시인은 또또를 '극도의 예민함과 개로서는 가져선 안 될 자존심을 가졌던 개'라고 표현한다. 그런 또또는 학대 받는 동안 생긴 깊은 정신의 상처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시인의 곁에 머무는 내내 아팠다. 그 모습을 연민과 애정으로 지켜보며 시인은 한결 같이 헌신한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이 점점 고단해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식구에게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 책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이 하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인 동시에, 인간이 다른 생명과의 동반적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이해해 가는 하나의 성장담이다. '내 뿌리의 본질이 무엇이든 이젠 어디로 옮겨가도 삶을 향유할 수 있다. 그걸 인식하자 미래가 너무도 명쾌하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다!' 작년 여름 또또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시인, 이제 오랫동안 불박여 살아온 사직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할 때 독자는 그만 멍해지고 만다. 하나의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별해 본 사람에게, 이 한 권의 책을 권한다.

- 추천자 : 정이현(소설가)

인문학 분야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김경임/산처럼
2013.10.20. 발행/416쪽/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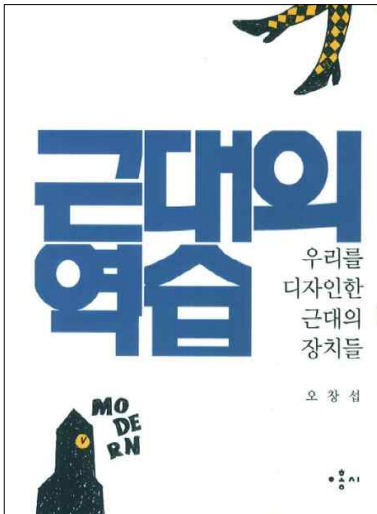
<몽유도원도>는 1447년(세종 29)에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이 그린 그림이다. 여기에는 안견의 그림과 함께 명필가였던 안평대군의 시와 기문, 집현전 출신 학자 21명이 지은 시가 친필로 남아 있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보물은 한국에 없다.

<몽유도원도>는 일본의 덴리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 번 한국을 다녀갔다. 1986년 경북궁의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전시회, 1996년 호암미술관의 조선전기 국보전, 2009년 한국 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가 그것이다. 이 그림이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전시실에는 엄청난 관람객이 몰렸고,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과 아쉬움이 남았다. 「몽유도원도」는 이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품이 되었다.

이 책은 「몽유도원도」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그림의 내용, 명사들의 시를 소개하고, 임진왜란 때 왜장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약탈된 이후 일본에서 유랑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한 책이다. 필자의 관심은 작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한 안평대군의 저택인 비해당, 마포 강변에 있던 별장인 담담정, 안평대군이 무릉도원과 같은 경치를 가진 계곡에 세웠던 무계정사, <몽유도원도>가 왜장에게 약탈될 때까지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자암과 같이 안평대군의 자취가 서린 장소를 안내한다.

태평성대를 구가한 세종 대의 시서화 작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몽유도원도>는 반드시 찾아와야 할 문화재이다. 그러자면 우선 이 책을 통해 <몽유도원도>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 추천자 : 김문식(단국대 사학과 교수)



근대의 역습
오상섭/홍시커뮤니케이션 홍시
2013.11.01 발행/308쪽/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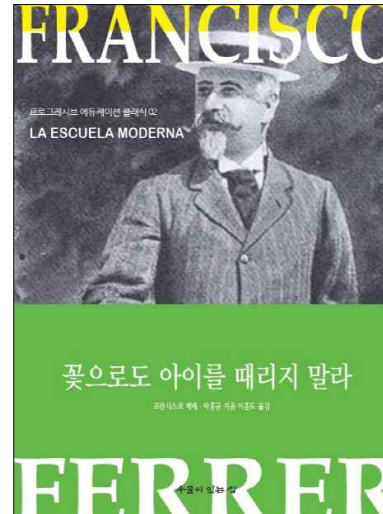
우리는 언제부터 근대인이 되었나?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 사고와 욕망을 극대화하고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가 항상 낫다는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전통과 단절되었고 서구인들의 사고방식과 취향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 책은 일제 강점기의 사진, 신문, 기사 등에서 우리를 근대화시킨 증거와 흔적들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시계가 우리를 계산 가능하고 균질적이며 공간화 된 시

간에 어떻게 맞추고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또한 세계를 이렇게 합리적 질서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과정을 투시법의 도입으로 설명한다. 미인대회를 통해서도 계량화되고 서구화된 신체에 대한 욕망과 시각을, 우량아선발대회를 통해서도 서구적 건강의 의미를 계몽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풍경화와 피아노, 욕실과 어린이 방, 서재와 정원을 갖추고 있는 서구식 문화주택이 어떻게 우리의 이상적인 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도 설명한다. 21세기에 이르러 지름신으로 신격화된, 유행과 명품을 섬기는 자본주의의 “소비의 종교”가 선교하는 과정을 백화점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보여준다. 직선과 유선형으로 상징되는 근대의 합리성이 각 개인들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여왔는가를 기차를 통해 설명한다.

디자인 전공자답게 저자는 우리에게 이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습관화된 각종 이미지들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근대성과 서구화의 모습들을 예리한 통찰력의 메스로 하나씩 발려내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고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조상들이 근대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어떻게 순순히 자발적으로 투항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추천자 : 이진남(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프란시스코 페레, 박흥규/이훈도
씨네스트(우물이 있는 집)
2013.10.21 발행/248쪽/12,000원

교육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움튼다.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을 진실하며 정의롭고,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을 자극하고, 발달시키고, 지도하며, 충분한 개인적 가치를 지는 쓸모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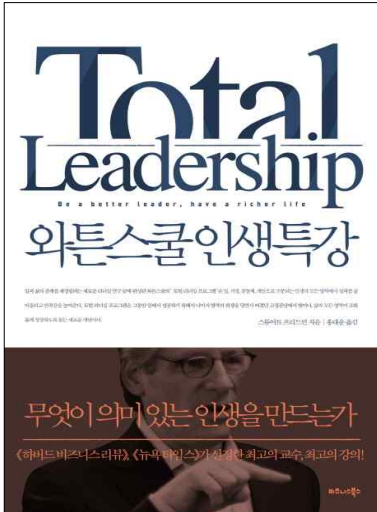
오직 성적 중심의 경쟁에 매몰돼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근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권위주의적이고 지엽적인 교육에 맞서 교육 본래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결코 헛수고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교육자는 많지만, 그의 교육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경우는 없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교육자로서 유일하게 사형을 당한 프란시스코 페레의 자유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에이에스널의 서머힐보다도 한 세대나 앞서 자유교육을 꿈꾸며 ‘모던 스쿨’을 설립한 그는 진보적인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권위에 의한 어떠한 억압도 아이들에게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페레의 비권위적 사고를 대변한다. 어떠한 명분을 내걸어도 권위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권위의 형태가 폭력이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쟁, 강제, 모욕, 수치도 주지 않고, 당시 가톨릭에서 금지한 남녀공학은 물론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함께 배우면서 연대와 평등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페레의 저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의 일독을 권한다.

- 추천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부 교수)

사회과학 분야



와튼스쿨 인생 특강
스튜어트 프리드먼/홍대운/비즈니스북스
2013.10.25 발행/288쪽/14,000원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이 일과 삶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일의 성과도 올리고 가족과 개인의 삶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일과 인생을 어느 한쪽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깨트린다. 저자는

먼저 일의 성공을 위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가치를 뒤로 한 채 직장에만 몰두하는 기존의 방식이 만족도와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훌륭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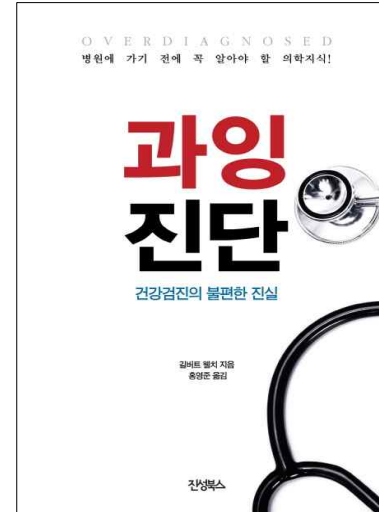
시대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06년에 출간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는 6개월 전의 지식정보도 과거의 지식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에 가서는 73일을 주기로 이러한 지식정보가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지식정보의 생산과 소비는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소통 수단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특정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매일, 24시간 내내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예측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균형적인 삶 역시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책이 이런 문제의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끊임없는 선택과 희생의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던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와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인 ‘토탈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 공동체, 자신의 성과와 만족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자 : 전형구(독서경영 칼럼니스트)

자연과학 분야



과잉 진단
길버트 웰치/홍영준/진성복스
2013.09.25 발행/392쪽/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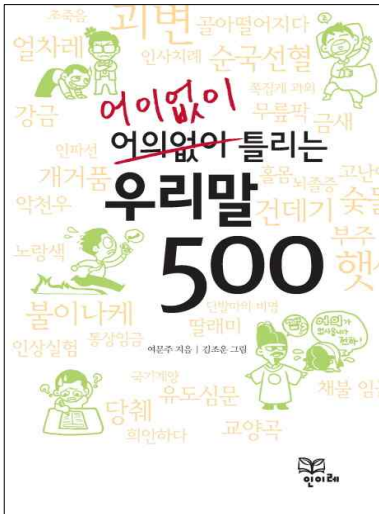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살찐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술자리에서 종종 그런 식의 농담을 한다. 이 농담은 때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를 종종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세상이 일종의 연속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분법을 적용하곤 한다.

질병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람들을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으레 구분한다. 정신병뿐 아니라, 당뇨병, 비만, 심장병, 암 등등. 의학과 과학이 정상 상태와 질병 상태가 뚜렷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음에도, 우리는 은연중에 환자와 정상인을 나눈다.

그리고 조기 검진에 쓰이는 최신 진단 기술들은 이 연속 스펙트럼에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 왔다. 즉 몰랐을 때에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조기 검진 때 아주 작은 이상을 발견하면 걱정하기 시작한다. 내가 환자가 아닐까?

의학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류는 점점 더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조기 검진이 병에 걸린 이에게는 유용하긴 하지만,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말한다.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 사회는 일찍 진단할수록 더 낫다는 페러다임에 사로잡혀 왔다. 평생을 지니고 살아도 별 탈이 없는 사소한 문제점들을 누구나 안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 책은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서 과연 그런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 추천자 : 이한음(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어이없이 틀리는 우리말 500
여문주/인ירה
2013.10.01 발행/300쪽/12,000원

영국인이나 미국인도 아닌데 영어 스펠링을 틀리면 창피해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 정작 우리말 맞춤법이 틀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 때는 맞춤법 파괴놀이라는 어이없는 유희가 유행하기도 했다. 민족의 영혼이 담겨있는 모국어에 대한 학대이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창피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마침내 우리말 맞춤법이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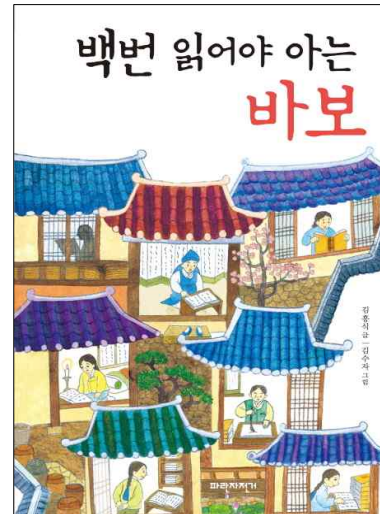
인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인터넷과 휴대폰, SNS를 통해 하루 종일 문자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맞춤법은 그 사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서는 맞춤법이 틀릴 때마다 감점 처리되고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필기시험에서도 엉터리 맞춤법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 직장의 상사들이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맞춤법이 틀린 무성의한 보고서를 읽을 때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혹시 나를 무시하는 성의 없는 글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글은 작성자의 인격과 교양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마침 세상에 나온 이 책은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존재다. 어이없고 황당한 맞춤법 실수를 죽집게처럼 잡아주는 일상의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500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를 모았다. 20여 년간 잡지사 기자와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해 온 필자 여문주씨의 우리말 사랑이 맺은 값진 결실이다. 이 책의 미덕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읽고 맞춤법의 기본기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복잡한 문법이나 어원 설명은 피하고 무엇이 틀리고 왜 틀렸는지를 단숨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추천자 : 이하경(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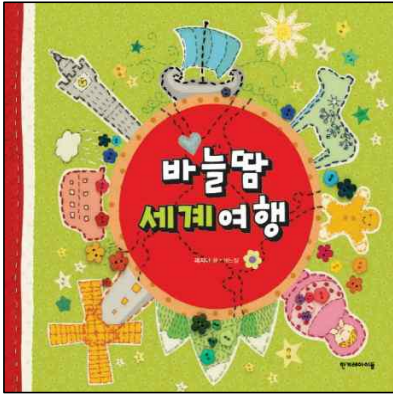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홍식 글, 김수자 그림/서해문집 파란자전거
2013.10.20 발행/160쪽/9,800원

독서와 공부의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와 경쟁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형서점이나 도서관의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과 쓸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간 도서들은 이런 독서 방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책들의 속도전이 펼쳐지는 시대에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은 자칫 고리타분한 독서방식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겠다.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는 바로 이런 독서 방식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기열전』의 '백이전'을 백 번이 아니라 평생 십만 팔천 번을 읽었다는 조선 시대 실존 인물인 김득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저자는 김득신의 공부방에 있던 책들을 의인화하여 판타지 형식의 이야기 구조를 빌려 당대의 독서 방식과 책의 세계를 재미나게 들려준다. 그런데 남들보다 둔하고 어리석어 원아홉이 되어서야 겨우 과거 시험에 급제할 수 있었다는 김득신의 삶을 오늘날 굳이 되살려낸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언정 공부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체화될 때까지 거듭 읽고 또 읽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노력의 소중함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공부를 못해 서당에서 쫓겨 와 울고 있는 아들에게 '공부란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잘난 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닦아 세상에 이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라며 자식을 독려했던 부모의 말에서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삼 돌아보게 된다.

- 추천자 : 김대경(서울 성수고 교사)



바늘땀 세계여행
레지나/한겨레출판 한겨레아이들
2013.10.28 발행/76쪽/12,000원

그림책은 아름다워야 한다.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술적 감흥과 미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이미지와 조화로운 색감은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태도와 아름다운 언어와 관계 깊다. 미감이 몸에

벤 사람은 타인의 가여운 정황과 처지를 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차선을 지켜 나란나란 달리는 자동차 행렬을 허물며 끼어들기를 할 수도 없다. 고요히 맑은 샘물을 어지럽히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도 거칠고 무례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퍼뜨릴 수 없다.

『바늘땀 세계여행』은 한 해 꼬박 공들인 수작업으로 태어난 아름다운 인문 그림책이다. 작가가 좋아하는 지구촌 이웃 열다섯 나라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수놓은 그림과 단추 구슬 레이스 스팅글 비즈 등 혼합 재료에 의한 콜라주 작품으로 소개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지식 정보를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조곤조곤 풀어 썼다. 특히 각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새로운 감각으로 보여주는 점이 놀랍다. 세련된 이미지에 역사적 기원을 곁들임으로써, 지식정보의 차원을 넘어 미감이 뛰어난 인문 도서를 만나는 기쁨과 포만감을 한껏 즐기게 해준다.

책이란 모름지기 대대세세 서가에서 거듭거듭 꺼내어 읽히며 독자의 탄성에 의해 다른 독자에게 발견되고 소개되는 유기체라고 할 때, 작가가 구현한 인문 세계를 두고두고 탐색하며 즐기는 독자의 소장 예술품이라고 할 때, 이 그림책은 애써 권할 만하다.

- 추천자 : 이상희(그림책 작가, 시인)